

디지털대학 중년기 재학생의 노화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혜성*, 이희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The Relations of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Focused on Middle Aged People of Digital University

Hye Seong Jeon*, Hee Youn Lee**

Dept. of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Dept. of Social Work, Seoul Cyber University**

요약 도래하는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현 시대의 중년기 성인들은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노화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디지털대학교육은 중년기성인의 제 2의 경력개발과정으로 부상하고 있고, 상당수의 중년기 성인은 디지털교육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노후불안과 우울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대학에 재학 중인 중년기 성인들의 노화불안 및 우울의 수준을 평가하고 노화불안에 따른 정신건강의 주요지표인 우울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대학에서 진로개발 중인 중년기의 재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노화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316부의 설문이 수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302부의 설문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디지털대학에 재학 중인 중년기 재학생의 전반적 노화불안 및 우울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중년기 성인들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결과인 것이다. 한편, 중년기의 노화불안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년기 성인들은 노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보다는 바람직한 노화관과 적정수준의 현실감을 갖는 것이 우울감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디지털교육을 통한 경력개발이 중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에 기여함을 조명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대학, 중년기 성인, 노화불안, 우울

Abstract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aging anxiety of the middle-aged on depression in aging society.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3 to December, 2013 and 302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mean scores of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were lower than average. Second, aging anxiety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depression. Third, income also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depression.

Key Words : Digital University, Middle-Aged, Aging Anxiety, Depression

Received 18 June 2014, Revised 19 July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Lee, Hee Youn(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Email: hsjeon@dankoo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고령사회를 예고하는 현시점에서, 중년기 성인들은 향후 자신의 노후에 발생할 신체적 노화, 경제력 약화,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로 개인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이 나이들어 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노화관을 갖게 하고 노후 불안을 형성하게 한다. 젊음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노화의 긍정적 측면보다 의존적이고, 약하고, 신체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등 생물학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 강하다[1]. 노화불안은 구체적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안,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40대, 50대의 중년기에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최근 실제적으로 중년기 성인들이 노화에 따른 노후 생활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8.3% 더 높다. 특히 여성일수록 수입이 낮고 학력이 낮은 계층에 속할수록 걱정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초반에서 노후에 대한 걱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2.2%는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며, 13.9%만이 노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보건복지부(2006)의 조사에서도 현재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8.4%였으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현저히 낮은 수치인 4.6%에 불과했다. 많은 청·장년층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불안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서적인 문제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불안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면서, 결국은 우울까지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이다[5].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불안 수위나 영향력이 적정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령화가 갖는 실제 위험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 불안이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제기하는 논의도 있다.

기존의 노화불안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6]. 중년기 자체가 급격하고 현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서, 폐경 및 호르몬 감소, 신체적 노화, 체력의 저하,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역할상실, 사회적 은퇴, 인생의 유한성의 인식에 따른 실존적인 이슈 등으로 복합적인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다[7]. 여기에 우울증까지 병행되면 수면이나 식사, 행동, 생각, 신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개인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기라도 그들이 자신의 경력개발 및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상층인지 아닌지에 따라 개인들이 경험하는 노화불안 및 우울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노후대비를 위해 자신의 경력개발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그룹중의 하나가 디지털대학의 중년기 학습자들이 될 것이다. 디지털 대학의 학습적 특성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이 활용가능한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의지와 적극성이 각별히 요구된다. 최근까지도 이같이 적극적으로 경력개발 중이거나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노후불안 및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의 각 연령에 따른 세대별로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향후 고령사회에서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지고 각 세대별마다 독특한 특성과 심각성을 보일 수 있는 중년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30세 중·후반으로부터 시작하여 65세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상당히 긴 인생여정이다. 이에 기존 연구만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조성되고 있는 노화불안이 실제 노인기를 앞둔 각 세대별 중년기 성인에게 정신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대학을 통해 개인의 진로 및 경력을 개발하는 중년기 성인들이 보이는 노화불안 및 우울의 수준은 어떠한지, 그들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년기에 디지털 대학에서 적극적인 경력개발을 하는 성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가 고령화문제를 어떻게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에서 대비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디지털대학에서 경력개발을 하고 있는 중년기성인의 노화불안 및 우울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디지털대학에서 경력개발을 하고 있는 중년기성인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2곳의 온라인대학교의 재학생들 중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중년기는 36세를 중년기의 시작점으로 하여 60세까지를 중년기로 포함시켰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인들이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총 358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316부가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2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노화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Lasher & Faulkender(1993)의 Anxiety about Aging Scale(AAS) 척도를[8] 이영주(2010)가 수정한 노화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9].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된 척도로 노화불안 정도에 따라 5점(1=전혀아니다,2=아니다,3=보통이다,4=그렇다,5=매우 그렇다)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큼을 의미하도록 역코딩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20문항이었다. 4개의 하위요인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값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Cronbach's α =.922, 심리적 불안정 Cronbach's α =.884,

외모에 대한 걱정 Cronbach's α =.782, 상실에 대한 두려움 Cronbach's α =.916이었고,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6이었다.

2.2.2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은 현재의 삶에 대한 가치상실, 자존감 저하, 무력감, 고립감, 분노, 자책감 등의 정서적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 측정을 위해 사용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Aron Beck이 만든 우울척도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0]. 사용방법은 일주일동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찾아 선택하고, (1)번=0점, (2)번=1점, (3)번=2점, (4)번=3점으로 점수를 매긴 후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해 총점을 산출한다. 점수구간은 0~9점 :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 중한 우울 상태, 24~63점: 심한 우울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7이었다.

2.2.3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는 조사응답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학력, 월가구 소득을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성인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변인들이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둘째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년기 성인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노화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디지털대학의 중년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결혼 상태, 종교, 학력, 월가구 소득 등을 파악하였다 <Table 1>. 우선 연령 구성은 30대(19.4%), 40대(51.2%), 50대(29.4%)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49.1%, 여성이 59.9%로 여성이 더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81.0%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35.2%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150명으로 49.6% 이상으로 나타나 거의 50%에 이르는 조사대상자들이 이미 대학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소득은 월300-400만원이 31.2%로 가장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30'	59(19.4)	religion	Protestants	106(35.2)
	40'	155(51.2)		Catholics	43(13.7)
	50'	88(29.4)		Buddhists	59(19.4)
				Etc.	8(2.8)
sex	male	142(49.1)	education	No religion	87(28.9)
	female	160(59.9)		high School	113(37.5)
				College	150(49.6)
				Graduate school	13(4.2)
marital state	missing	26(8.7)	monthly income	~1million won	14(4.5%)
	married	245(81.0)		101~2million won	63(20.7%)
	divorce	23(7.6)		3.01~4million won	68(22.5%)
	separation	2(0.7)		3.01~4million won	93(31.2)
	separation by death	5(1.7)		4.01~5million won	43(14.2)
	single	26(9.0)		5.01million won~	21(6.9%)

3.2 주요변수의 특성

3.2.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노화불안 및 우울에 관한 기술통계분석에 관한 결과를 아래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노화불안은 전체 평균 2.63(SD=.53364)으로 5점만점의 척도에서 중간 수준인 3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

령대별 노화불안 비교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30대가 2.71(.41700), 40대는 2.67(.54097), 50대는 2.42(.55349)로 오히려 30대가 40대 및 50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을 보였다. 30대 집단과 60대 집단에서(p<.05), 40대 집단과 60대 집단(p<.05)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의 경우 평균 1.61점(SD=.46682)으로 우울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p<.05). 참고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1.70(.52673), 40대는 1.64(.50381), 50대는 1.49(.34663)로 나타났다. 역시 우울에 있어서도, 오히려 30대가 40대 및 50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수준을 보였으나 어느 연령집단도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후검증에서 30대와 50대에서(p<.05), 40대와 50대에서(p<.05)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able 3>.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variables

variable	sample size	mean	SD	minimum	maximum
Aging Anxiety	302	2.63	.53364	1.20	4.10
depression	302	1.61	.46682	1.00	3.20

<Table 3>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variables according to age group

variable	sample size	mean	SD	minimum	maximum
Aging Anxiety	30' (59)	2.71	.41700	1.20	4.08
	40'(155)	2.67	.54097	1.26	4.10
	50' (88)	2.42	.55340	1.42	4.06
depression	30' (59)	1.70	.52673	1.44	3.20
	40' (155)	1.64	.50381	1.32	3.12
	50' (88)	1.49	.34663	1.00	3.08

3.2.2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토

노화불안과 우울 간에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가 .80보다 낮아서 상관관계 계수 상에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ging Anxiety	depression
Aging Anxiety	1	.451**
depression	.451**	1

3.2.3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에 주요변인으로 노화불안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나이, 결혼형태, 종교, 학력, 월평균소득 등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제시된 독립변인들로 구성된 우울의 회귀모형은 2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변인인 노화불안이 중년기 성인의 우울에 정적 관계로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즉,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우울도 높아지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중년기 성인의 우울에 부적 관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별, 나이, 학력 및 결혼형태 등은 우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최소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성된 학력변인은 우울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depression

variable	B	SE	β	t-value
aging anxiety	.342	.065	.366	5.272***
age	-.016	.048	-.132	-1.524
sex†	.097	.070	.093	1.382
marital state†	-.050	.033	-.132	-1.524
religion†	.096	.082	.091	1.24
education†	-.020	.046	-.029	-.429
monthly income	-.118	.033	-.286	-3.557***
constant	1.180	.350	3.370	
R	.562			
R ²	.316			
Adjusted R ²	.281			
F	9.067			

Reference group : 1)sex-male, 2)marital state-married, 3)religion-Protestant, 4)education-a high school graduate

* $p<.05$, ** $p<.01$, *** $p<.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대학에서 학업 중에 있는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및 우울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일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중년기에 온라인대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온라인대학에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매우 진취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기 때문으로도 간주할 수 있으나, 한편 온라인 교육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노후준비를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통해 노화불안 및 우울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대학 중년기 재학생의 노화불안 및 우울감의 수준은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노화불안은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중년기의 우울감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노화불안은 유의해야 하는 정신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 외, 월평균소득은 우울을 악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의 우울 등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실제적 소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중년기 성인 전체에게 적용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표집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을 온라인대학으로 한정하여 설문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대비를 위해 정규교육, 시민강좌, 각종 매스컴과 여론 등을 통해 노화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11]. 둘째, 노화불안 및 우울 등의 중년기 성인의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 연령상 40대 및 50대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우울증은 40세 이상 중년층부터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우울증의 해소 및 예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용한 심리적 접근으로는 마음챙김, 주관적 안녕 및 행복, 삶의 기대, 긍정적 심리의 증진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같은 대인 관계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우울문제는 감소되고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셋째, 중년기 성인일 경우에는 무엇보다 부부관계의 지지관계 형성 및 긍정적 재조정이 중년기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안정화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부부간의 협력과 상호신뢰의 회복은 힘들게 예측되는 노후상황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공동체적 의식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년기 성인의 불안 및 우울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과 같은 현실적인 이슈가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 접근도 요구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현시점에서 개인의

자산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과 모을 수 있는 자금과 방법에 대해 경제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12].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디지털대학에서 진로 및 경력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년기 성인들이 노화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감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중년기 성인의 실질적인 노후대비 및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 O. Choi, S. N. Kim, K. I. Shin, J.H. Lee, Anxiety about Aging of a Resident Community of Adul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1, pp.19-32, 2008.

[2] K. P. Lasher,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 37, No. 4, pp.247-259, 1993.

[3] S.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ssue & Focus, Vol. 2, No.1, pp.1-8, 2011.

[4] C. W. Lee, The Life Instability of the Elderly in Korea, Koeran Research, Vol. 18, No.1, 2003.

[5] S. A. Park, K. J. Song, The effect of social anxiety on psychologic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1, No. 2, pp.1-29, 2005.

[6] S. Y. Shin, Effect of Middle-Aged aging anxiety factors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Press. 2013.

[7] H. Y. Lee, H. S. Jeon,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Expectancy, Mindfuln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1,

No.7. pp.275-284. 2011.

[8] K. P. Lasher,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 37, No. 4, pp.247-259, 1993.

[9] Y. J. Lee,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and the Aging Anxiety of Middle-aged Couples, Hanseo University Press, 2010.

[10] M. S. Lee, M. K. Rhee, A Development of Korea Depression Scale. JOURNAL OF THE KOREAN NEURO PSYCHIATRIC ASSOCIATION, Vol. 42, No. 4. pp.96-104, 2003.

[11] S.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ssue & Focus, Vol. 2, No. pp.1-8. 2011.

[12] H. J. Han, S. H. Joung, Single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6 No.2, 2013.

전혜성(Jeon, Hye-seong)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 가족상담, 여성, 생애발달, 온라인교육 등
- E-Mail : hsjeon@dankook.ac.kr

이희연(Lee, Hee-Youn)



- 2005년 2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4월 ~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빈곤문제, 이터닝
- E-Mail: imilhy@hanmail.net